

# KIA 새 얼굴들의 맹활약... 시범경기 보는 재미 '쏠쏠'



외국인 선수  
로니 윌리엄스

**강속구 155km 찍고 4이닝 무실점 호투... 확실한 눈도장**

KIA 타이거즈 팬들이 시범경기가 시작되는 오후 1시를 손꼽아 기다린다. 새 얼굴들의 활약을 보는 재미가 쏠쏠해서다.  
KIA는 17일 수원KT위즈파크에서 열린 KT 위즈와의 시범경기에서 4-2 승리를 거뒀다.  
새 외국인 선수 로니 윌리엄스가 첫 경기에서 4이닝 1피안타 4탈삼진 무실점으로 호투했고, '슈퍼루키' 김도영은 2개의 2루타 포함 3안타 행진을 펼쳤다. '차세대 거포' 김석환은 홈런포를 날리면서 KIA 팬들을 미소짓게 했다.  
팬들 앞에 첫선을 보인 로니는 최고 155km의 강속구를 뿌리면서 확실한 인상을 남겼다.  
로니가 1회말 첫 타자 김민혁을 좌익수 플라리로 잡은 뒤 황재균에게 우중간 2루타를 허용했지만,

이날 경기의 처음이자 마지막 진루 허용이었다. 강백호를 1루 땅볼로 돌려세운 로니는 박병호의 방망이를 헛돌게 하면서 1회를 실점 없이 끝냈다. 이후 삼자범퇴쇼를 펼쳤다.  
로니가 2회말 라모스를 좌익수 플라리로 잡았고, 배정대는 유격수 땅볼로 처리했다. 그리고 박경수는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웠다.  
3회에는 직접 김준태의 공을 잡아 원아웃을 만든 뒤 심우준을 상대로 세 번째 탈삼진을 뽑아냈다. 김민혁은 유격수 땅볼로 처리하면서 빠르게 3회를 마무리했다.  
4회에도 직접 베이스 커버에 들어가 황재균을 1루 땅볼로 처리했고, 강백호는 2루 땅볼로 돌려세웠다. 그리고 박병호의 방망이를 다시 헛돌게 하면

## KIA 4 : 2 KT

서 46구로 첫 등판을 마무리했다.  
최고 155km의 강속구를 바탕으로 공격적인 피칭을 선보인 로니는 커브 (8개·114~123km), 체인지업 (17개·136~142km)으로 타이밍을 뺏으면서 속제였던 '이닝'을 잘 풀었다.  
또 직접 공을 잡고, 빠르게 베이스 커버에 들어가 아웃카운트를 늘리는 등 수비에서도 합격점을 받았다.  
타석에서는 이번에도 '막내' 김도영에게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졌다.



1번타자·유격수 김도영  
2루타 2개 포함 3안타

1번 타자 겸 유격수로 나선 김도영이 고영표를 상대한 첫 타석에서 밀어서 우전안타를 만들었다. 3회 두 번째 타석은 2루수 플라리. 5회 세 번째 타석에서는 하준호와 승부를 벌였고, 우중간으로 공을 보낸 뒤 2루까지 내달렸다.  
김도영의 안타 수집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1-2로 뒤진 7회초 1사 2루. 타석에 선 김도영이 이번에는 이장재를 상대로 2루타를 날리면서 승부를 2-2 원점으로 돌렸다. 김도영은 앞선 타석과 다르게 좌중간으로 공을 보내면서 날다른 타격 실력을 보여줬다.  
김도영은 이어 1루 땅볼 때 나온 투수의 포구 실책으로 홈에 들어오면서 승부를 3-2로 뒤집었다. 7회에는 김석환이 힘자랑을 했다.



차세대 거포 김석환  
홈런포 날리며 힘자랑

선두타자로 나온 김석환이 심재민의 직구를 받아 우월 솔로포를 장식하며 4-2를 만들었다.  
이날 활약을 더해 김석환과 김도영은 LG 홍창기 (8타수 5안타·0.625)에 이어 시범경기 타격 2·3위에 랭크됐다.  
김석환은 10타수 6안타로 타율 0.600, 5타점을 기록하고 있다. 2루타·3루타·홈런 하나씩 만들었다. 김도영은 홈런과 2개의 2루타 포함 15타수 8안타, 타율 0.533, 2타점과 2개의 도루도 기록하고 있다.  
'새 얼굴'들의 활약으로 '디펜딩 챔피언' KT와의 첫 승부를 승리로 장식한 KIA는 18일 같은 장소에서 시범경기 일정을 이어간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광주FC 상승세 타고, 전남드래곤즈 연승 잇는다

광주, 이견희 앞세워 5연승 도전  
전남, 부산 상대 3연승 나서

광주FC가 '新 해결사' 이견희를 앞세워 5연승을 내달린다.  
광주는 20일 오후 1시 30분 부천종합운동장에서 부천FC를 상대로 하나원큐 K리그2 2022 6라운드 경기를 펼친다.  
좋은 흐름 속에 5연승 질주를 위해 떠나는 원정 길이다.  
광주는 지난 16일 서울이랜드와 홈경기에서 이견희, 헤이스의 득점으로 2-1 승리를 거두며 리그 3연승을 달렸다. FA컵까지 포함하면 4연승 질주다.  
광주는 선두 FC안양을 상대로 리그 3연승과 1위 자리를 동시에 노린다.  
1위 안양(3승 1무 1패·승점 10·득점7), 2위 부천FC(3승 1무 1패·승점 10·득점5) 보다 한 경기를 덜 치른 광주(3승 1패·승점9)는 1점 차로 1·2위를 쫓고 있다.  
이정호 감독이 강조한 광주만의 축구가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 끈끈해진 조직력을 바탕으로 득점 이후 승리를 지키는 견고한 축구를 하고 있다. 공격진에서는 이견희와 헤이스의 움직임이 눈에 띈다. 두 선수가 나란히 3골을 기록하면서 득점 공동 선두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견희는 광주의 새로운 해결사로 떠올랐다. 패배가 기록됐지만 김포FC와의 시즌 개막전에서 광주 시즌 1호골 주인공이 된 이견희는 지난 안산 원정에 이어 서울이랜드와 홈경기에서 연달아 골 세리머니를 펼쳤다.  
서울이랜드와의 경기에서는 집중력이 돋보였다. 전반 16분 코너킥 상황에서 끌기때 맞고 나온 공이 문전에 떨어졌고, 상대 수비진에 둘러싸여



광주FC의 이견희(가운데)가 지난 16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서울이랜드와의 홈경기에서 골을 넣은 뒤 환호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있던 이견희가 끝까지 집중력을 발휘해 공을 골대로 밀어 넣었다.  
헤이스는 설명이 필요 없는 공격의 핵심이다. 서울이랜드전에서 페널티킥을 실축했지만, 머리로 추가골을 만들면서 골 찬스를 날린 아쉬움을 지웠다. 이견희는 헤이스의 골을 도우면서 이 경기의 수훈선수(MOM)에도 선정되기도 했다.  
'주장' 안영규를 중심으로 박한민-김승우로 이어지는 센터백 라인은 현재 리그 최소 실점 2위(3실점)로 견고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안영규는 리그 내 태클 1위(12개), 클리어

링 2위(42개)를 기록하며 주장과 베테랑으로서 안정화하고 있다.  
광주가 3년 만에 만나게 되는 부천을 상대로 연승 질주를 이어갈 수 있을지 눈길이 쏠린다.  
전남드래곤즈는 부산아이파크를 상대로 3연승을 노린다.  
전남은 19일 오후 4시 부산아시아드경기장에서 부산아이파크를 상대로 6라운드 경기를 치른다. 전남도 상승세를 타고 원정길에 오른다. 개막 후 3경기에서 '무득점'으로 1무 2패에 그쳤던 전남은 4라운드 경남 원정에서 장성재의 골로 침묵을 깬 뒤 카차라바의 득점을 더해 2-1, 시

즌 첫 승을 신고했다.  
이어 지난 16일에는 3연승 중이던 부천을 안방으로 불러들여 다시 한번 2-1 승리를 만들었다.  
지난해에 이어 올 시즌에도 전남 유니폼을 입고 뛰는 발로텔리가 페널티킥 키커로 나서 시즌 첫 골을 장식했고, 새로 가세한 플라나도 마수결이 골을 기록했다.  
외국인 공격수들이 모두 골 맛을 보면서 전남의 화력에 불이 붙었다.  
워밍업을 끝낸 전남이 2무 3패의 부진에 빠진 부산을 상대로 3연승에 도전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손흥민 골 침묵 토트넘은 2-0 승리

손흥민(30)이 선발로 80분을 소화한 가운데 소속팀 토트넘은 브라이턴 앤드 호브 엘비언에 완승을 거뒀다.  
손흥민은 17일(한국시간) 영국 팔머의 아렉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브라이턴과의 2021-2022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16라운드 순원 원정 경기에 선발 출전, 후반 35분 루카스 모라와 교체될 때까지 뛰었다.  
해리 케인, 데얀 콜루세브스키와 토트넘의 공격진을 이끈 손흥민은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는 못했다. 지난달 26일 리그 유나이티드와의 27라운드, 이달 8일 에버턴과의 28라운드에서 리그 2경기 연속 골을 넣었던 손흥민은 13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와의 29라운드와 이날은 공격 포인트 없이 지나갔다.  
손흥민의 이번 시즌 공식전 득점은 12골(EPL 정규리그 11골·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 콘퍼런스리그 1골)에 멈춰 있다.  
지난해 12월 예정됐었으나 토트넘 선수단의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연기돼 이날 열린 경기에서 토트넘은 수비수 크리스티안 로메로의 결승골과 케인의 추가 골에 힘입어 2-0으로 완승했다.  
토트넘은 지난 경기 맨유에 2-3으로 져 리그 2연승이 끊겼으나 곧장 반등, 7위(승점 48)에 자리해 UEFA 챔피언스리그(UCL) 출전의 마지노선인 4위 진입의 희망을 이어갔다.  
현재 4위인 아스널(승점 51)이 이날 리버풀에 0-2로 져 승점을 추가하지 못하면서 토트넘은 격차를 승점 3으로 좁혔다.  
케인은 리그 통산 95번째 원정 경기 득점을 기록, 은퇴한 웨인 루니(94골)를 제치고 이 부문 EPL 역대 1위로 올라섰다. 아울러 케인은 시즌 리그 12골을 기록했다.  
/연합뉴스